

20-30대 여성근로자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순차적 매개효과

오 지 윤

김 명 식[†]

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20-30대 여성근로자 35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3.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매개 변인으로 하는 두 개의 단순 매개 분석을 했고, 다음으로 두 변인이 순차적으로 작용하여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직렬 매개하는지를 분석했다. 직렬다중매개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경로의 효과 검증 결과, 성차별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경험이 여성 집단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낮은 집단자존감은 자기침묵을 증가시켜,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20-30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관계성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예방과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성차별경험, 여성 집단자존감,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

* 본 연구는 오지윤(2019)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김명식,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316호, E-mail: klb2000@jj.ac.kr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지위 향상 등 인권신장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남아 선호와 남성들의 가사 미참여 등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변하고 있으며, 성차별적 용어(예. '여의사→의사', '저출산→저출생')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7년 여성 고용률은 50.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남녀 고용률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로서, 객관적인 통계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8).

이렇듯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성평등 의식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 성역할과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로 인해 적지 않은 여성들이 취업 후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김수한, 신동은, 2014).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여성 임금근로자 881만8천명 중 비정규직은 363만2천명(41.2%)으로 비정규직 비중은 여성이 남성(26.3%)보다 14.9% 높아서(여성가족부, 2018) 고용환경의 질적인 측면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또한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4.6%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1위로서, OECD가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발표한 2000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자리하고 있으며, 유리천장 지수도 OECD 국가 중 6년째(2013-2018년) 최하위에 머물렀다(OECD, 2018). 가족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국미애, 2018), 여성은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요구되는 역할로 인해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박경환, 2012). 여성 근로자는 취업, 승진, 임

급에서의 불이익, 결혼·출산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가정과 직장에서의 다중 역할에 대한 압력 등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김은하 등, 2017;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최근 들어 성차별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성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채용과 고용 시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이익, 성별임금격차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페이미투(PayMetoo)'나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시행 등으로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한국의 여성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통계청, 2018), 20-30대 여성은 과거와 달리 남녀차별 없는 평등교육을 받아왔다(김예은, 연규진, 2018). 그러나 교육 기관을 벗어나 사회로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차별적 사회를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김예은, 2017).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20-30대 여성은 나이,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구분될 수 있다. 20-30대 여성은 과거와 달리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체제에서 고용불안정이나 성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박기남, 2011), 20대 여성이 50대 여성보다 차별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이연정, 2019) 기성세대와는 다른 측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 직속 상사와 최고 경영자의 성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조직 내 상급자는 대부분 기성세대로서 20-30대 여성과는 성 인식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감 또한 클 것 같다.

성차별경험은 생물학·사회학적 성을 토대

로 남성 혹은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을 의미한다(김재은, 김지현, 2016). 성차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성차별경험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해 왔다. 성차별경험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저하되어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Fischer & Holz, 2007),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 불안, 신체증상 등에 있어 현저히 많은 증상을 보였지만, 성차별을 적게 경험했다고 지각하는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Klonoff, Landrine, & Campbell, 2000), 성차별 경험이나 인식이 여성의 전반적인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성차별 경험(고용, 승진, 임금, 업무배치, 해고, 교육기회의 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며 주관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한인희, 2015), 낮은 직무 만족,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ke & Mikkelsen, 2005; 장영, 장수덕, 2006). 또한 성차별 경험은 화병(김은하, 백혜영, 2018), 여성의 사회적 정체감(김지경, 2002), 이상섭식 행동(김아연, 김예진, 배윤정, 2018), 경력몰입 수준(박지현, 탁진국, 2008)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현재까지 국외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 국내에서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연구(류한수, 2016), 호텔기업의 여성근로자가

지각하는 성차별에 관한 연구(배가야, 2005), 여성종업원이 지각한 성차별에 대한 연구(박지현, 탁진국, 2008) 등 연구대상이 한정적이었다. 특히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대 여성근로자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자존감은 성차별경험과 우울, 불안, 심리적 디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성차별경험 자체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Swim et al., 2001; Wei et al., 2008),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될 수 있으며(Corning, 2002; Moradi & Subich, 2004), 성차별경험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저하되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Cassidy et al., 2004; Fischer & Holz, 2007). Luhtanen(1990)은 사회정체성 이론을 자존감 개념에 접목시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자존감(personal self-esteem)은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정서적 평가로써(박용두, 2008) 성차별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백혜영, 2018, 라만앤디아니술, 2017). 그러나 개인자존감은 개인적 차원으로써 집단의 분위기를 지각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직장이나 단체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자존감보다 집단자존감이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자존감을 탐색하고자 한다. 집단자존감(collective self-esteem)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존중과 가치판단으로서(심윤기, 김완일, 2014), 성차별경험이 한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에

의해 결정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 사회집단 중에서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단자존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자존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소속감과 가치를 인지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기는 것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Verkuyten & Lay, 2011; 심윤기, 김완일, 2014), 소속 집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집단 간의 차별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차별 인식과도 연결된다(원숙연, 최윤희, 2015). 심리적 디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중요한 가치부여와 동일시를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집단자존감이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Cassidy et al., 2007). 특히 지각된 성차별과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공격, 사적차원의 집단자존감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Fischer & Holz, 2007), 차별과 우울 증상 사이에서 낮은 자존감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ei et al., 2008).

국내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 연구가 없었으나, 성차별 및 집단자존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의 영향 등을 추론해볼 수 있다. 공무원 조직 내 성차별인식이 성별 집단자존감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높은 성차별적 인식을 가지며(원숙연, 최윤희, 2015), 성차별경험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자존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등, 2018).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여성이 갖는 성별 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또 다른 심리적 변인 중의 하나는 자기침묵(self-silencing)이다. 자기침묵은 관계 내에서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유지를 위해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을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Jack, 1991). 개인보다는 집단 내에서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자기침묵할 가능성이 서양에 비해 매우 높다(한나리, 2009; 김명화, 홍혜영, 2011). 특히 여성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여성으로서의 사회·문화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으며(김명화, 홍혜영, 2011; Lemkau & Lauda, 1986), 자기침묵은 상황을 해결해주기보다는 더 악화시키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차별을 경험하더라도 여성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자기침묵을 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기침묵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Hurst & Beesley, 2013). 자기침묵은 특히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는데, 자기침묵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김미진, 2009; 양지윤, 2006), 이 우울은 대인관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김명화, 홍혜영, 2011).

성차별경험을 지각한 후에 즉각적인 자기표현을 억압하고 자기침묵을 하는 경우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감정을 야기하게 된다(Kosmicki, 2017).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할 경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자기침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희롱 피해 상황에서도 집단주의 성

향이 강할수록 분노 표출이 감소하였으며, 분노 억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이민조, 박혜경, 2015). 이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와 조직 내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자기침묵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성차별을 경험하더라도 직장 내 불이익 조치와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로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기 쉽다(김가은 등, 2018). 자기침묵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을 감추고 억제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정서적 고갈 상태가 되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며(Jack, 2011), 성차별사건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Swim et al., 2010). 이처럼 자기침묵이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성차별경험의 위험요인임을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기능하기 쉬울 것이다.

낮은 자존감은 자기침묵을 증가시키고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가치있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침묵 수준이 낮아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침묵을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Page, Stevens, & Galvin, 1996). 양지운(2006)은 자존감은 자기침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라고 보고했다. 현재까지 자존감과 자기침묵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은 수동적 대처양식,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쉽다(Wei et al., 2008) 등에서 관련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원래 자존감이 높은 여성은 성차별경험 시에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불편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에 덜 취약하므로, 자존감이 강할수록 자기침묵이 줄어든 것이다(Corning,

2002). 특히 여성은 문화적 역할에 있어 남성에 비해 관계의존성이 높고 자기비난과 감정 억제의 경향이 강하므로, 여성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침묵이 증가하기 쉽다(Jack, 2001). 또한 이러한 여성의 개인적 자존감과 자기침묵의 밀접한 관계는 여성으로서의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추론된다(Oh, 2012).

선행 연구들은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아직까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침묵이라는 두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에 대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으로서의 인식과 가치판단을 알아볼 수 있는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성차별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집단의 분위기를 중시하며, 여성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분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집단자존감을 사용하여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 근로자의 자존감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 그 결과를 여성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적 개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집단자존감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자기침묵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북도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20-30대 여성 근로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350명의 응답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324명(100%)이었고, 나이는 최저 만 20세에서 최고 만 39세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8.4세($SD=5.4$)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성차별경험

인식된 성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2017)이 한국어로 번안한 성차별사건 척도를 사용하였다(Schedule of Sexist Events: SSE).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6점 Likert 척도(1=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6=거의 늘(내 삶의 70% 이상의 시간) 그런 일이 일어났다)로 평정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까지 살면서(어린 시절부터)'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음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24)

구분		M	SD
나이		28.4	5.4
		n	비율(%)
결혼 여부	미혼	212	65.4
	기혼	111	34.3
	기타	1	0.3
최종 학력	고졸	71	21.9
	전문대졸	98	30.2
	대졸	136	42.0
	대학원이상	14	4.3
	기타	5	1.5
근속 기간	1년미만	72	22.2
	1-5년미만	151	46.6
	5-10년미만	77	23.8
	10년이상	24	7.4
직업	일반사무직	107	33.0
	공무원	34	10.5
	전문직	74	22.8
	판매·서비스	74	22.8
	생산·기술	8	2.5
	기타	27	8.3
	정규직	191	59.0
근무 형태	비정규직	116	35.8
	기타	17	5.2
월 급여	100-150만원	51	15.7
	150-200만원	148	45.7
	200-250만원	79	24.4
	250-300만원	27	8.3
	300만원이상	19	5.9

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직장 동료나 학교친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여자라는 이유로 모르는 낯선 사람(예.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가 있다. 김은하 등(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7,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디스트레스

주관적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Vermeersch, Lambert, & Burlingame(2002)이 개발하고 손난희와 유성경(2012)이 번안한 척도 (Outcome Questionnaire 30: OQ-30)를 사용하였다. 최근 2주 이내에 경험하였던 증상의 수준을 측정하며, 주관적 불편감 19문항(예. “두렵다”), 대인관계 5문항(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사회적 역할수행 6문항(예. “예전만큼 일이나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0=전혀 그렇지 않다, 4=거의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이 더 높음을 반영한다. 손난희와 유성경(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4,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자존감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cker와 Luhtanen (1990)이 개발하고 김혜숙(1993)이 번안한 집단자아존중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 CSES)를 사용하였다. 박지영(2018)의 연구에서는 성별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이 척도의 문항에서 ‘사회 집단을 ‘성별 집단’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사회 집단’을 자신이 속한 ‘여성 집단’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 문항으로, 하위 요인은 ‘사적(private) 집단자존감’ 4문항, ‘공적(public) 집단자존감’ 3문항, ‘멤버십(membership) 집단자존감’ 4문항, ‘정체성(identity) 집단자존감’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으로서 자신에 대해 느끼는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여성들을 무가치하다고 느낀다”가 있다. 김혜숙(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7, 본 연구에서는 .68로 나타났다.

자기침묵

Jack과 Dill(1992)이 개발한 자기침묵 척도 (Silencing the Self Scale: STSS)를 양지윤(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외적인 자기지각(externalized self-perception)’ 6문항,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care as self-sacrifice)’ 9문항, ‘자기침묵(silencing the self)’ 9문항, ‘분열된 자기(divided self)’ 7문항 등 4개의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자주 그렇다)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한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과 다툼을 일으킬만한 나의 감정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가 있다. 양지윤(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5,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Hayes, 2015)를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변인과 성차별경험, 여성 집단자존감,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등 기술 통계를 분석하고,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성차별경험, 여성 집단자존감,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Hayes, 2015) 4번 모델을 설정하여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

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Hayes, 2015) 6번 모델을 설정하여 직렬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의 상관

연구대상자의 성차별경험, 심리적 디스트레스, 여성 집단자존감, 자기침묵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변인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2).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성차별 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r=.43, p<.01$), 자기침묵($r=.14,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여성 집단자존감($r=-.17, p<.01$) 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여성 집단자존감($r=-.46, p<.01$)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자기침묵($r=.48,$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324)

	1	2	3	4
1 성차별 경험	-			
2 심리적 디스트레스	.43**	-		
3 여성 집단자존감	-.17**	-.46**	-	
4 자기침묵	.14**	.48**	-.39**	-
M	45.62	66.81	57.33	84.75
SD	15.622	17.537	7.297	14.760
왜도	.901	.167	.597	-.467
첨도	.443	-.666	.428	.461

** $p <.01$

$p<.01$)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여성 집단자존감은 자기침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39, p<.01$).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여성 집단자존감의 단순매개효과

성차별경험이 여성 집단자존감을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차별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B=.324, p<.001$)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성차별경험은 집단자존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B=-.124, p<.01$), 성차별경험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집단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경험과 집단자존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집단자존감($B=-.421, p<.001$)과 성차별경험($B=.272, p<.001$) 모두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변인인 집단자존감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집단자존감이 추가되면 설명량은 15.7% 증가하여, 총 설명량은 34.5%가 되었다($R^2, 321$)=84.820, $p<.001$).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24, 95\% \text{ CI } [-.207, -.044]$).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집단자존감이 낮아지고, 집단자존감이 낮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단순매개효과

성차별경험이 자기침묵을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차별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B=.324, p<.001$)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성차별경험은 자기침묵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B=.091, p<.01$),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자기침묵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침묵과 성차별경험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기침묵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524, p<.001$), 성차별경험도 여전히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서($B=.277, p<.001$) 자기침묵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성차별경험만을 고려할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량은 18.8%였으나, 매개변인인 자기침묵을 추가하자 총 설명량은 36.6%로서($R^2, 321$)=92.911, $p<.001$) 17.8%가 증가되었다.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91, 95\% \text{ CI } [.017, .161]$). 이는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자기침묵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자기침묵 행동을 많이 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순차적 매개효과

성차별경험이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직렬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성차별경험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서($B=.324, p<.001$)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진다. 성차별경험은 첫 번째 매개변인인 집단자존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서($B=-.124, p<.01$) 성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집단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매개변인인 자기침묵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나 유의하지 않았다($B=.051, ns$). 첫 번째 매개변인인 집단자존감은 두 번째 매개변인인 자기침묵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서($B=-.321, p<.001$) 집단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침묵이 높아지는 것을 예측한다. 성차별 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직렬다중매개효과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자존감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이 유의하였고($B=-.294, p<.001$), 자기침묵이 미치는 정적 영향도 유의하였다($B=.395, p<.001$). 성차별경험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 설명량은 16.8%였으나, 이 과정에 두 직렬 매개변인을 포함시키면 설명변량은 43.2%로($R(3, 320)=81.371, p<.001$) 26.4%가 증가 되었다. 성차별 경험이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거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직렬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10,000회의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집단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1($X \rightarrow M1 \rightarrow Y$)은 유의하였고($B=.036, 95\% CI \{.013, .114\}$), 자기침묵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2($X \rightarrow M2 \rightarrow Y$)는 유의하지 않았다($B=.020, 95\% CI \{-.009, .049\}$).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순차적으로 거친 매개 효과3($X \rightarrow M1 \rightarrow M2 \rightarrow Y$)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성차별 경험이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거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이르는 직렬 매개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15, 95\% CI \{.005, .059\}$).

이는 성차별 경험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집

표 3.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직렬다중매개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F	df ₁	df ₂	R ²
					LL	UL				
집단자존감	성차별	-.124	.039	-3.163**	-.201	-.046	10.007***	1	322	.030
자기침묵	집단자존감	-.321	.044	-7.256***	-.408	-.234	30.597***	2	321	.160
	성차별	.051	.031	1.616*	-.011	.113				
디스트레스	집단자존감	-.294	.048	-6.106***	-.389	-.199	81.371***	3	320	.432
	자기침묵	.395	.056	7.005***	.284	.506				
디스트레스	성차별	.252	.032	7.848***	.188	.315	74.681***	1	322	.188
	성차별	.324	.037	8.641***	.250	.398				

표 4.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순차적 매개 효과 검증

	B	SE	t	95% CI	
				LL	UL
총 효과	.324	.037	8.641***	.250	.398
직접 효과	.252	.032	7.848***	.188	.315
간접 효과					
합계	.072	.021		.030	.114
X→M1→Y	.036	.012		.013	.063
X→M2→Y	.020	.015		-.009	.049
X→M1→M2→Y	.015	.006		.005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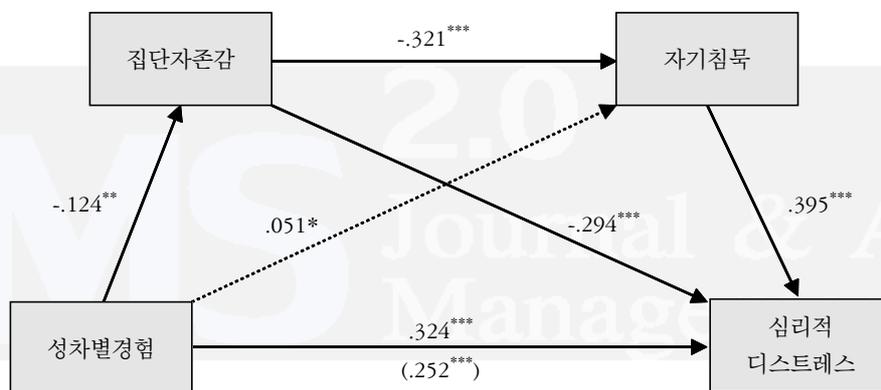


그림 1.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 직렬다중매개 모형의 비표준화 계수
(괄호는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의 비표준화 계수임.)

단자존감이 낮아지고 개인 내적 긴장감이 높아지며, 그 결과 상대방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대인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한 자기침묵 수준이 높아져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근로자를 대상

으로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매개 역할을 검증했다. 그 결과 20-30대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있어 여성 집단 자존감과 자기침묵이 매개했고, 특히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으로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Landry와 Mercurio (2009)의 연구, 남녀대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한 Klonoff, Landrine과 Campbell(2000)의 연구,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예은(201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선행연구나 학생을 포함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예은(2018)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는 20~30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와 연구대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성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집단자존감이 낮아지고, 집단자존감이 낮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자존감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성차별경험 자체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성차별경험이 집단자존감을 낮게 하고,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성차별경험 자체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김은하 외, 2018; Swim et al., 2001; Wei et al., 2008)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매개 혹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Cassidy et al., 2004; Corning, 2002; Fischer & Holz, 2007; Moradi & Subich, 2004). 본 연구에서는 집단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보았는데, 성차별경험이 낮아지면 집단자존감을 높게 하고,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는 성차별경험, 집단자존감,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련성은 본 연

구에서 처음으로 연구되어서 앞서 살펴본 개인자존감 선행연구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원숙연과 최윤희(2015) 연구에서 성차별적 인식이 여성의 성별 집단자존감에 부적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하는 여성일수록 여성으로서의 존중과 가치를 낮게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향후 보충 연구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침묵 수준이 높아져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자기침묵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는데, 성차별경험이 높아지면 자기침묵행동이 높게 되고,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아비판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제약적인 관계 전략을 채택하는 자기침묵 수준이 높고, 이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연구(Hurst & Beesley, 2013)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침묵은 우울을 예측한다는 연구(양지윤, 2006), 자기침묵 할수록 분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Jack, 1991), 성차별경험이 분노를 매개로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예은, 2018)를 함께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하는 여성근로자일수록 집단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러한 집단자존감 저하는 자기침묵 수준에 영

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됨이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경험에 대한 지각이 높은 여성은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며(Wei et al., 2008), 집단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성차별을 경험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orning, 2002).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기침묵과 우울 사이에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 같다(Page, Stevens, & Galvin, 1996). 특히 매개변인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보다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이 투입되었을 때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할 때 여성으로서의 낮은 집단자존감이 자기침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높은 집단자존감은 자기침묵을 감소시켜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낮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여성이 속한 집단의 가치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학적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20-30대 여성근로자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연결하는 기제를 검증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성차별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을 매개로 본 연구(Hurst & Beesley, 2013)와 집단자존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Fischer & Holz, 2007)를 일부 지지하여 통합적 설명이 시도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20-30대 여성근로자의 성차별경험의 개입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여성이라는 성별집단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와 자기침묵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자존감을 증진시킨 후 자기침묵 행동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입의 기본적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성차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개인자존감 위주의 연구들을 벗어나 집단적 차원의 자기개념으로 확장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특정지역 소재의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여성 전체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보다 충분한 인원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개인차를 보일 수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이 응답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MMPI의 타당도 척도와 같이 반응자의 태도나 성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이 필요한 것 같다. 셋째, 자료조사에 있어 관찰연구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한다면 보

다 풍부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경험과 집단 자존감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으나, 성차별 경험과 개인자존감과의 관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보완연구도 매우 필요한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집단자존감 척도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성차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나 사회적인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성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20-30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것 같다. 관련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급자인 기성세대에게 이해의 시작점이 되고, 기존세대에게 변화의 필요성 등을 제기함으로써 성 평등의 식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성차별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 여성의 심리적 고통 완화와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미애 (2018). 경력단절여성, 왜 직장을 그만 두는가. 여성학연구, 28(1), 251-282.
- 김가은, 엄유진, 권기성, 김연수 (2018). 직장인의 미투운동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 27(2), 33-68.
- 김명화, 홍혜영 (2011). 자기침묵, 대인관계, 우울의 관계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09). 여대생의 자기침묵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한, 신동은 (2014). 기업 내 여성관리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경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학 논문집, 12, 149-167.
- 김아연, 김예진, 배윤정 (2018). 여자대학생의 성차별 경험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페미니즘 성향과 자아존중감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53-453.
- 김예은 (2018).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예은, 연구진 (2018).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99-523.
- 김은하, 김경희, 박한솔, 정보현 (2018). 성차별 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 세계관입증이론을 토대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09-429.
-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 김은하, 백혜영 (2018).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187-205.
-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

- 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7-37.
- 김지경 (2002). 성차별경험이 여성의 사회적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3).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 김혜숙, 윤소연 (2009). 여성리더의 특성과 효율성: 조직의 성차별 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여성*, 23(1), 33-54.
- 라만엠디아니술 (2017). 사회지배 지향성, 자존감 및 양가적 성차별 태도 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 류한수 (2016).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345-356.
- 박경환 (2012). 기혼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관계가 관리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5(2), 879-905.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 박용두 (2008). 사회적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관계 모형 검증: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의 매개 역할.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박지영 (2018). 성별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박지현, 탁진국 (2008). 여성종업원의 직장 내 성차별 지각이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2(2), 245-263.
- 배가야 (2005). 호텔기업의 여성근로자가 지각하는 성차별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학위논문*.
- 손난희, 유성경 (2012). 상담성과 측정을 위한 상담성과척도(Outcome Questionnaire-30: OQ-30)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3(1), 1-15.
- 심윤기, 김완일 (2014). 군 병사의 자기복잡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6), 2667-2685.
- 양지윤 (2006). 애착유형, 자존감, 자기침묵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인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
-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한국여성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8(2), 307-328.
- 원숙연, 최윤희 (2015). 조직 내 성차별 인식에 있어서 성별 집단자존감의 영향력: 서울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1), 1-18.
- 이민조, 박혜경 (2015). 성희롱 피해 상황에서 문화 성향에 따른 분노 표현과 수치심 경험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95-396.
- 이연정 (2019). 성차별 인식에 대한 남녀 및 세대 간 차이: 차별 정보 제시의 역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장영, 장수덕 (2006).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대한 지각과 직무만족: 성(Gender)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14, 257-278.
- 통계청 (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
- 통계청 (2018). 국가지표체계: 교육.
- 한나리 (2009).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갈등 상황에서의 인지 및 행동 반응.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인희 (2015). 직장성차별과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71-271.
- Burke, R. J., Mikkelsen, A. (2005). Gender differences in policing: Signs of progress? *Employee Relations*, 27(4), 425-236.
- Cassidy, C., O'Connor, R., Howe, C. J., & Warden, D. (2004).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ersonal and ethnic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329-339.
- Corning, A. F. (2002). Self-esteem as a moderator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117-126.
- Cro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60-67.
- Fischer, A. R., & Holz, K. B.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s of collective and personal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154-164.
- Hayes, A. F.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version-Based Approach Second Edition*} (이형권 옮김). 서울: 신영사. (원전은 2013에 출판)
- Hurst, R. J., & Beesley, D. (2013). Perceived sexism, self-silenc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ollege women. *Sex roles*, 68(5-6), 311-320.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28-183.
- Jack, D. C. (2001). Understanding women's anger: A description of relational pattern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2, 385-400.
- Jack, D. C. (2011). Reflections on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and its origin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5), 523-529.
-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1), 97-106.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A measure of lifetime and recent sexist discrimination in women's liv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0.
- Klonoff, E. A., Landrine, H., & Campbell, R. (2000). Sexist discrimination may account for well-known gender differences in psychiatric sympto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1), 93-99.
- Kosmicki, M. (2017). *UNED Research Journal*, 9(2), 202-208.
- Landry, L. J., & Mercurio, A. E. (2009). Discrimination and women's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control. *Sex Roles*, 61(3-4), 192-203.
- Lemkau, J. P., & Lauda, C. (1986). The "Selfless Syndrome": Assessment and Treatment considerations. *Psychotherapy*, 23, 687-697.
- Moradi, B., & Subich, L. M. (2004). Feminist

- identity development measures: Comparing the psychometrics of three instrum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1), 66-86.
- OECD Gender data portal.
www.oecd.org/gender/data.
- Oh, J. J. (2012). *Self silencing, cultural values and well-being among Asian and European American women*. LA: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Page, J. R., Stevens, H. B., & Garvin, S. L. (1996).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elf-silencing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4), 381-396.
- Swim, J. K., Eysell, K. M., Murdoch, E. Q., & Ferguson, M. J. (2010). Self-silencing to sex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6(3), 493-507.
- Swim, J. K., Hayers, L. L., Cohen, L. L.,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3.
- Verkuyten, M., & Lay, C. (2011). Ethnic minority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collective self-estee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1), 1969-1986.
- Vermeersch, D. A., Lambert, M. J., Burlingame, G. M. (2000). Outcome Questionnaire: Item sensitivity to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4, 242-261.
- Wei, M., Ku, T. Y., Russell, D. W., Mallinckrodt, B., & Liao, K. Y. H.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462.

1차원고접수 : 2020. 10. 18.

심사통과접수 : 2020. 11. 27.

최종원고접수 : 2020. 12. 30.

The Rel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Female in their 20s and 30s: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Female Collective Self-Esteem and Self-Silencing

JiYun Oh

MyeongSik Kim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ollective self-esteem and self-silenc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350 female workers of 20-30s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gression analyses and tests of indirect effects using bootstrapping revealed that there were direct effect of gender discrimination affecting psychological distress,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of collective self-esteem leading to self-silencing which then affects psychological distr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quential path of collective self-esteem and self-silencing may be important mechanism through which gender discrimination contributes to an increased risk of psychological distres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intervention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Discrimination, Female Collective Self-Esteem, Self-Silencing, Psychological Distress